

우리의 시간

로마서 13:11-14, 찬송가 564장

1 기도 가족 중 한 사람이 기도를 하거나 아래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십시오.

“사랑의 주님.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 주시고 마음의 평안 가운데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.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, 어둠의 행실을 벗고 주님의 구원의 빛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. 아멘.”

2 성경읽기

새번역 성경

11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.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.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.

12 밤이 깊고,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,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.

13 낮에 행동하듯이, 단정하게 행합시다. 호사한 연회와 술취함, 음행과 방탕,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.

14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.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.

개역개정 성경

11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

12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

13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

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

3 본문 설명

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. 그 시간이란, 육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이 아닌 영적인 시간을 말합니다. 즉 구원의 시간입니다. 그 구원의 역사에 끝이 다가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의 갑옷, 즉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.

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경우 타이밍에 의해 승부가 결정됩니다. 따라서 시기를 안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구원에 있어 그 시기를 안다는 것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. 우리는 시간표를 점검해야 합니다. 무엇이 필요하고,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시간을 놓쳐버리면 결국 처절한 후회만을 남길 수 밖에 없습니다. 당신이 놓치고 있는 시간, 또는 시기는 없는지, 또 놓치고 있는 기회는 없는지 돌아보십시오.

당신은 지금까지 성장 시기에 적절하게 자신을 가꾸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? 잃어버린 시간, 또는 기회 중에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입니까?

4 삶의 나눔

· 말씀을 묵상하고 느낀 점을 가족과 함께 나누십시오.

5 함께하는 기도

·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실천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.

7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.

본문 요약

One-Point 묵상

1 묵상구절

절

2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

3 오늘의 삶

4 적용

5 기도